한·베트남 검역협상 타결 성과… 닭 가공품 첫 수출

삼계탕 넘어 너겟·닭강정까지…수출 확대

한국산 닭고기가공품이 검역·위생협상 타결을 계기로 베트남에 처음 수출된다. 삼계탕 중심이던 닭고기가공품 수출이 너겟과 닭강정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북 익산시 ㈜하림에서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초도물량 선적 과정을 확인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와 업계가 현지 제품 등록과 유통망 확보, 닭고기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추진해 첫 수출로 이어졌다. 베트남은 2025년 인구 1억명을 넘어선 동남아 주요 시장으로, 육류 소비와 육가공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육류 시장 규모는 2020년 77억달러에서 2024년 110억달러로 연평균 9.6% 성장했다.

하림은 올해 약 2t의 닭고기가공품을 초도 수출하고, 내년까지 총 70여t(약 7억원 규모)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다.

닭고기가공품은 수출 품목 다변화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수출액은 2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5% 증가했다.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수출시장 확대와 성장세 지속이 기대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식품부제공

농진청, 무거운 벌통 운반 보조장치 개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벌무리 150→300군으로 늘어

농촌진흥청이 고령 양봉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동식 벌통 운반 보조장치를 개발했다. 벌통을 자동으로 들어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밀기에는 덧통을 올린 벌통 무게가 40kg에 달한다. 국내 양봉 농업인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인 상황에서 반복적인 벌통 운반은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주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장치는 네 바퀴의 방향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동 장치에 전동 승강기와 집게를 결합했다. 휴대전화 앱으로 조작하면 벌통을 들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다. 바퀴 네 개를 같은 방향으로 돌려 옆으로 이동하는 게걸음 주행과 제자리 회전이 가능해 폭 2m의 좁은 양봉사 통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경사 10도의 오르막 주행도 가능하며, 작업 후에는 승강기를 접어 장치에 실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학교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과 협력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올해 경기 양평과 전북 김제의 양봉농가, 국립농업과학원 시험 양봉장에서 성능을 검정한 결과 벌통 한 개를 옮기는 데 평균 4분 47초가 걸렸다. 장치 사용에 익숙해질수록 벌통 앞에서 위치를 맞추는 시간이 최대 7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한웅철 교수 연구팀과 함께 카메라로 벌통의 위치와 각도를 인식하고 스스로 접근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협대학교, 고양특례시·지역농협과 미래농업 발전 및 지역상생 맞손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농협대학교(총장 송두한)는 19일 다산관 대강당에서 고양특례시·고양 관내 8개 지역농협과 미래농업 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대학교의 농업교육·연구 역량과 고양특례시의 정책 지원, 지역농협의 유통·판매 역량을 연계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청년·예비농업인 대상 교육·실습·창업 지원 ▲고양형 K-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술교류, 농산물 가공·상품화 ▲농협 유통사업장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제품의 유통·홍보 및 판로 확대 등이다.

특히 농협대학교는 그동안 고양특례시와 함께 추진해 온 스마트팜 창업준비농장, 귀농·귀촌 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농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송두한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과 고양시의 농업정책, 지역농협의 현장 역량을 결집해 스마트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고양형 K-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상생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고양관내 8개 지역농협과 미래농업 발전 및 지역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부, 2030청년자문단 20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4기 '2030청년자문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39세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20명 내외를 선발하며, 성별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자문단원은 위촉일부터 1년간 농식품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안, 청년 정책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한다.

농정 모니터링과 현장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에서 할 수 있다. 선발 절차와 세부 일정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윤리·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가운데 최초 사례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AI 개발부터 운영·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기준이다.

공사는 AI 활용 확대와 함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해 왔다.

인공지능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관련 기준을 수립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인증은 공사가 구축한 AI 관리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인공지능 전환과 함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에 맞춘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농어민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Like me, Like 米, 대학생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바자회 수익 전액 장애인 복지 위해 기부

희망나눔마켓·동화청과… 신아원 바자회 동참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권장희·서울청과 대표)은 지난 10월 17일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신아원에서 열린 '2026 희망나눔 가을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 후원과 직접 판매에 나서며 장애인 복지 나눔에 동참했다.

장애인 100여 명의 생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신아원의 이번 바자회에는 가락시장 동화청과(주)(대표이사 홍성호)도 뜻을 함께했다.

동화청과(주)는 사과, 배, 단감, 귤, 고구마, 감자, 양파 등 영양가 높은 가을 제철 과채류를 후원하고 직접 판매자로 나섰다. 특히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 바자회를 찾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희망나눔마켓은 2010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장애인의 영양 관리를 위해 매주 제철 과일을 지원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나눔의 범위를 넓혀 바자회에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과채류 후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청소와 환경 개선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눔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판매 수익금 전액은 현장에서 신아원에 기부되었다. 해당 기부금은 재활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생활시설 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조성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